

이스라엘 선거- 2월 10일 Israel Elections - February 10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누가 차기 총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당이 연립하여 정부를 이끌 것인가입니다. 인구 7백만의 이 작은 나라엔, 약 10개의 정당들이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총리 후보 중엔 가장 유력하며, 여론 조사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는 또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도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쿠드 당, 노동당, 카디마 당과의) 연합 정부가 최고의 연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리브니가 이 당들을 연합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니 성도들에게 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여권과 이민, 결혼 등 문제를 다루는 내무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바티칸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주교의 복직을 중단시키다

2주 전, 베네딕트 교황은 “교황청”과 관련하여 파문된 세 주교를 풀어줬습니다. 그 중 한 명인 리처드 윌리엄슨은 최근 스웨덴 TV에 나와 자신이 “가스실은 없었다”고 믿는다고 하며 나찌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교황에게 전달되자 독일 및 이스라엘 정부는 시위를 했고, 바티칸은 윌리엄슨에게 “절대적으로 명백하게” 사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은 처벌 가능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카톨릭 교회, 독일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향한 행보입니다.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 곳 저희 공동체와 사역 단체에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아의 복음을 듣는 데에 새로이 열리고 있음을 경험 중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돌과구는 특별히 일대일 대화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런 개인적 관계 중 다수는 초자연적으로 조정되고, 인도되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저희 민족의 구원을 향한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은 뜻으로 열매가 많이 맺히길 기도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롬 11:26).

가자 전쟁과 터키의 반응...

(터키 아웃리치로 저희와 동역하고 있는 M 으로부터)

가자 전쟁에 대한 터키의 반응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최근 타바우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터키의 에르도간 총리와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매우 열띤 논쟁을 벌여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됐습니다. 결국 에르도간 총리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며 포럼을 나가버렸습니다. 언론 보도와 총리의 발언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반 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 하마스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터키 총리는 준 이슬람 정부를 이끌며, 중동에

이스라엘과 유럽으로부터는 멀고 이란과 친밀한 새 질서를 확립해 터키를 포함시키려는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깊은 주의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지 부시께 감사

조지 W. 부시는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하는 가운데 퇴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낮다는 것이 반드시 잘못을 범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인기가 높다고 해서 정의를 행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저는 영예가 주어져 마땅한 데에 영예를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부시 씨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테러**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함(그는 세계 지하드 운동에 맞섰고, 이라크 내 미군의 존재는 이란이 시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으로 접근하는 군사적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 2) **이스라엘**을 책임 있게 지지함 (그는 현대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의 편이 돼 준 세계 지도자입니다.)
- 3) **생명 존중**을 견지함(그는 법적 조치와 법관 임명에 있어 낙태를 제한하는 입장은 이어왔습니다.)
- 4) **가족의 가치**를 위해 싸움(그는 전통적 결혼의 신성과 성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교육적/ 법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 5) **크리스천 신앙**을 진심으로 표현함(그는 자신의 간증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항상 일꾼들에게 친절과 존경심으로 대했습니다.)

언약의 백성

유대 민족을 흔히 “언약의 자손” 곧 “브네이 브릴”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노아의 후손이며 노아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가 실상 “언약의 자손”입니다.

인류 역사를 2,000년 단위의 세 부분으로 나눠 보면, 하나님과 인류의 언약적 관계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나뉘집니다.

1. **노아 언약** - 전 인류를 위한 것.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믿음. 기본적 도덕 계명.
2. **아브라함 언약** - 이스라엘/ 유대 백성 (및 개종자들)을 위한 것. 모세의 율법, 아론의 제사장직 및 다윗의 왕국 등 여러 하부 계명 포함.
3. **새 언약** - 열국의 모든 거듭 난 성도들을 위한 것.

각각의 언약에는 특권과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각 언약은 이전의 것을 포함하며, 그것을 토대로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노아의 언약을 포함하고,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및 노아의 언약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원함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이상의 언약 관계 없이 서지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도덕적 율법에 대한 더욱 날카로운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각각엔 대속 제물과 언약의 징표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아의 십자가로 동물의 제사를 대신합니다.) 각각엔 그 나뭇의 계시가 있고, 나뭇의 영적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세 언약은 모두 예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로서, 예수아께서 노아의 홍수 때 함께하셨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하셨으며 출애굽 때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고,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들과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에는 충성과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 용서와 형벌, 은혜와 심판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따라 삶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약에 속해 있고, 오직 예수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haul Byunghyun Go